

아주 최강
케미스트들의
케미진진한
이야기

케미 스토리

: 우리들의 화학 이야기

우리가
지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



아주대학교 화학과
비상대책위원회

| 목차

프롤로그

01 화학과 새내기 과대표 소개

02 교수님 인터뷰

03 학교 주변 맛집

04 학교 시설 알아보기

05 추가 공지 사항

에필로그



| 프롤로그

안녕하세요 화학과 학우 여러분 !

저희는 화학과 비상 대책 위원회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활발한 캠퍼스 생활을 즐기지 못한 지 벌써 1년 하고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때문에 많은 학우들이 학교 축제와 자연과학대학 체육대회, 화학과 행사, 동아리 활동 등 여러 프로그램을 즐기지 못해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캠퍼스를 누릴 수 없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학과의 소식을 조금이라도 전달해보고자 이번 소식지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과 함께한 즐거웠던 인터뷰부터 화학과 소학회 공지까지 여러 소식을 담았으니, 끝까지 '케미스토리'에 남아 함께 이야기를 풀어 나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비상대책위원회



이 화학과 새내기 과대표 소개



이 화학과 새내기 과대표 소개

I 첫번째 주자

-21학번 과대 민지인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과 21학번 과대표 민지인입니다. 화학과 '비상대책위원회' 소식지를 통해 처음 인사하게 되어 약간의 아쉬움이 남지만, 여러분들께 이렇게나마 인사할 수 있어 기쁘네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매일매일 재미있는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 이랍니다!



아주대학교에서 처음 맞이했던 몽글몽글했던 봄과 특히나 더웠던 올해의 여름을 지나, 찬바람이 솔솔 부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제가 입학한 지도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네요. 나아가고자 희망하는 분야를 위해 화학과에 입학한 후, 알게 모르게 배우다 보니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2학기에는 대면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아직도 상황이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참 아쉽습니다. 하루 빨리 여러분들을 캠퍼스에서 만나 뵈 수 있기를 오늘도 빌어 봅니다!

I 두번째 주자

-부과대 노정우



학교에 합격하고 나서 아주대 투어를 하던 겨울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1학기가 지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2학기가 되었습니다. 2학기가 되면서 1학기 때 하지 못한 경험들과 만나지 못한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하는 기대도 잠시 코로나로 인해 접어 두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같이 겪어가는 학우

분들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나아져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를 소개하자면 아주대학교 화학과 21학번 부 과대 노정우입니다. 이번에 화학과 내 소식지를 통해서 늦게나마 정식으로 인사 드립니다. 저는 경상남도 거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수원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화학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부 과대를 지원한 이유는 학과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입대를 위해 저는 가까우면 1학기 멀면 1년 후 쯤에 학교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을 되도록 빠르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대와 코로나 등 많은 변수들이 저의 대학생활을 순탄치 않게 하고 있지만, 저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학교 생활을 즐기고 싶습니다! 앞으로 화학과 21학번의 부 과대 노정우 잘 부탁드립니다.

1 세번째 주자

-부과대 박가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21학번 부 과대 박가은입니다. 지난 1학기 재미있고 알차게 보내셨나요? 저는 학우들을 사귀고, 선배님들 그리고 교수님들까지 만나 뵈 수 있어서 굉장히 즐겁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2학기는 1학기보다 더 나은 코로나 상황을 바라며 좀 더 자유로워 지길 바랐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네요...!



대학생이 되면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정말 많은데, 엠티, 축제도 즐기지 못하는 이 상황이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많은 과목 중 과학이 제일 좋았고, 과학 중 화학을 제일 좋아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화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화학과에 진학하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도 제가 화학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화학과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며 경험하고 제 꿈을 진취적으로 찾아 나아가고 싶습니다! 부 과대가 되어서 아직 많은 것들을 하진 못했지만 더 열심히 활동 할 테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02

교수님 인터뷰



02 교수님 인터뷰_서성은 교수님



연구실 : 원천관 216호

연구실번호 : 2603

이메일 : sesuh@ajou.ac.kr

연구관심분야 : 유기화학, 의약화학, 화학생물학

홈페이지 : <https://sites.google.com/view/suhgroup>

Reporter. 김정연, 노정우

Q. 교수님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유기화학 전공이고, 박사는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학위를 했습니다. 이후에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에서 Postdoc을 했고, 그 기간동안 미국 제약회사 Merck에서 일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유기화학 반응을 개발하고, 그 반응을 이용해서 바이오에 응용하고 제약에 응용하는 일들을 주로 했었고 현재 귀국하여 이렇게 아주대에 교수로 오게 되었습니다.

Q. 교수님에게 '화학' 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A. 저는 크리스천 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과학은 창조주가 만든 여러 물질, 생명체, 현상을 우리가 여러 도구를 가지고 들여다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학은 그 중에서도 분자가 반응하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그 분자가 반응하게 되면 일어나는 주위 현상들도 관찰하고, 반복되는 법칙을 발견하며 이론을 만들어 나가는 학문입니다. 저는 화학이 재미있고 정말 좋아합니다.

Q. 교수님께서 세부 전공을 선택할 때, 영향을 줬던 인물이나 사건이 있었나요?

A. 제 대학 시절에는 과마다 학생을 모집하지 않았고 자연대 1학년으로 입학해서 2학년때부터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생물학과를 1학년 동안에는 지망했었는데 당시 유기화학 전공이신 교수님께서 일반화학 강의를 너무 잘하셨고,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학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후 그 교수님을 따라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유기실험실에서 계속해서 실험을 배웠습니다. 유기화학이라는 것을 일찍 접하고 노출하게 되니까 앞으로의 진로 등을 고민하고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일찍 일찍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Q. 미국 연구생활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연구는 어떤 연구였나요?

A. 박사 시절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박사 때, 저널에 제출하는 첫 논문이 바로 통과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첫 번째 논문은 7번 여러 저널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다른 저널에 논문을 제출할 때마다 논문의 형식을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등을 반복하다 보니 2년이 소요되었고 8번째 냈을 때 비로소 통과되었습니다. 그때, 논문 쓰는 방법을 철저하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은 논문을 굉장히 잘 쓰셨는데 그때 제가 밤낮으로 교수님께 훈련을 받아서 논문 쓰는 실력이 매우 많이 늘었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Q. 이번에 아주대학교 교수직 제의를 수락하시거나 지원하신 계기가 있었나요?

A. 일단은 저는 아주대학교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주대학교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이공계가 굉장히 강하다는 점입니다. 아주대학교는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적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점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학교 재정도 굉장히 힘든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오히려 신입 교수들에게 연구비 등을 오히려 세 배로 늘려 지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연구하다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학교에서 보여주는 방향성이 제가 생각했던 길과 같아서 해결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Q. 코로나로 인해 현재 비대면 강의를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나요?

A. 교수 생활의 시작을 비대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실감이 덜 납니다. 곧 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겠지만,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져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곧 직접보고 수업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전에는 연봉이 높거나 인정받는 직업을 하려고 노력했던 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행복한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나와보니,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일이 많아져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앞으로 진로를 선택할 때 하고 싶은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학생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겁니다. 화학은 공부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학문입니다. 점점 알게 되면 알아가는 재미가 엄청납니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보길 바랍니다.

02 교수님 인터뷰_김환명 교수님



연구실 : 원천관 222호

연구실번호 : 2602

이메일 : kimhm@ajou.ac.kr

연구 관심 분야 : 유기재료, 바이오센서, 생체영상

홈페이지 : <http://mpbl.ajou.ac.kr/>

Reporter: 박가은, 서해지

Q. 교수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A. 안녕하세요, 저는 유기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환명 교수입니다. 연구분야는 유기화학 중에서도 유기재료 쪽이고, 바이오 이미징에 사용되는 형광 프로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로브에 질병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 특정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유기화학과 유기합성, 실험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은 크게 2개로 구성되며 유기합성실, 바이오 이미징 연구실이 있습니다. 바이오 이미징 연구실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업그레이드 된 영상 장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언제나 방문을 환영합니다.

Q. 화학과 교수님으로서 교수님께 화학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 A. 화학은 모든 과학의 중심이죠. 물질의 근원을 연구하고, 더 나은 물질을 계속 만들어가고, 세계적으로 중요한 7대 중점 분야에 모두 화학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삶에 필수적인 부분과 웰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화학이며, 화학의 기여도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Q. 교수님께서서는 현재 바이오 관련 바이오 센서, 유기재료, 생체영상 분야를 연구하시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A. 대학원생 때 유기재료를 전기 재료 쪽으로 응용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기물질이 전기재료에서 안정성이 좋지 않아, 유기화합물을 바이오 시스템에 응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자 재료에 활용됐던 골격들을 살아있는 시료한테 적합하게 개조하는 것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더 확장시키고 싶어서 연구실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Q. 최근에 연구하시는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연구가 있으신가요?

A. 우연히 다른 현상이 나올 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 재미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원래 목적은 암세포를 찾아가는 프로브를 만들어 그 안에서 빛을 내는 프로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일단 암세포를 찾아 빛을 내는 것은 성공, 근데 관찰하고 있는 동안 이 세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암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죠. 이 프로브를 광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우연히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연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로 인해 현재 비대면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A. 원래 같으면 같은 강의실에서 얼굴 보면서 말도 하고 서로 모르는 거에 대해 질문도 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 재미도 없었습니다. 제일 아쉬웠던 것은 함께 어울릴 수 없었다는 것, 이게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작년 신입생들은 우리 학교 캠퍼스가 너무 예쁘는데 누릴 수도 없었는데 올해는 다행히도 와서 구경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올해는 작년보다 실시간 강의 시스템도 원활하게 갖춰져 서로 물음과 답하는 시간도 갖고 학생들이 실험이나 학교에 나와서 캠퍼스를 누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점차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Q. 화학과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비대면 사회, 언택트 사회가 된다고 해서 결국은 사람끼리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이기에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 보다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그때 교수님, 선배님 등 경험 있는 사람을 통해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02 교수님 인터뷰_김유권 교수님



연구실 : Energy 207

연구실번호 : 2896

이메일 : yukwonkim@ajou.ac.kr

연구관심분야 : 촉매표면화학, 기체-고체 계면반응, 광촉매

홈페이지 : <https://sites.google.com/site/ajousucceed/>

Reporter. 김수빈, 민지인

Q. 교수님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화학과 학생들! 저는 김유권 교수입니다. 아주대학교 화학과에 온 지 벌써 12이나 13년 되었네요. 그러다 보니 제 위에 은퇴하신 교수님들도 계시고, 밑에 젊은 교수님도 다섯 분이 계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학교 분위기도 알고, 은퇴하신 교수님과 교류도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다리를 놔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서 연구 분야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다 보니 요즘에는 화학에 어떤 재미있는 요소가 있는지, 시작하는 학생들이 어떤 분야로 진출할지에 관심이 많이 가는 편입니다.

올해는 학과장을 맡게 되었으니 과의 중심에 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 소통을 많이 하고 다리 역할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 활동을 하면서 필요하면 많이 써먹어도 괜찮아요. 물론 학기 초에 개인적으로도 바쁜 일이 많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해도 하려면 다 하는 거니까. 가능하다면 시간이 될 때마다 티타임도 하고 기회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Q. 그렇다면, 자연과학 중 화학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A. 화학은 보면 물질이 다양한데, 물질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화학을 선택했죠. 요즘은 더 나아가서 생명과학도 중요한 듯해요. 생명은 주로 유기화합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생명과학도 화학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물질세계에서의 상호작용, 생명현상, 화학반응 그 중에서도 특히 촉매반응 같은 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 연구 분야에서 앞으로 할 게 많습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은 더 연구해서 밝혀낼 것이 많다는 것이고, 그럼 성장할 여지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이유에서 자연과학 중 화학을 택하게 되었죠.

Q. 코로나 이후 진행되는 비대면 수업의 아쉬운 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나요?

A. 저보다는 학생들이 더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화면을 보면 집중이 잘 안되기도 하고, 강의실에 와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하는 게 말의 뉘앙스나 제스처가 전달이 더 잘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수업을 하는 교수님들도 답답하고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더 재미가 덜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빨리 COVID-19 상황이 끝나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 교수님이 하시는 연구 분야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화학은 분자에 대한 학문인데, 분자를 조금 더 연장하면 고체가 됩니다. 저는 고체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 현상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백금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백금은 덩어리로 있을 때, fcc 구조가 반복됩니다. 백금으로 금반지를 맞추고 반지 내의 원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fcc 구조이냐? 그건 아니에요. fcc 구조인 조그만 알갱이가 뭉쳐서 만들어지지만, 실제 재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와 조금 더 달라요. 그래서 백금의 물성은 이 구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복잡한 도메인 구조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쪽과 안쪽만 봐도 물질의 구조 때문에 원자들의 성질이 다 달라요. 둘의 전기화학적 특성이 다르고, 1 마이크로의 큰 덩어리와 1 나노 자리의 백금은 성질이 달라요.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 많은 레시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성질이 뭐가 다른지 연구합니다. 왜 반응성이 달라졌는지, 어제 만든 것과 오늘 만든 것은 왜 다른지, 구조가 어떤지, 반응성이 어떤지 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합니다. 관련된 데이터를 얻어서 내가 설명한 것과 맞는지 확인해보고 다르면 또 왜 다른지 생각해봐요. 다른 이유를 찾다 보면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 재료를 만들고 연구하는 게 제 연구입니다. 유기화학은 자연계에 흔한 탄소 수소로 이루어진 다양한 물질들을 연구하는 데, 그 중 수소는 가장 간단한 구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요즘 관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수소를 잘 만드는 촉매 시스템, 그 중에서도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만들 때 천연가스를 분해하는 촉매반응을 잘 하는 촉매 시스템을 요즘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질도 중요하지만, 반응을 유연하게 하는 반응 장치도 잘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합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연구는 어떤 연구인가요?

A. 아무래도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알코올을 이용해 설명해보죠. 알코올은 -OH기에 붙어 있는 사이드 체인에 따라 화학 반응성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메탄올 (CH_3OH)은 에탄올 (C_2H_5OH)보다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 반응속도가 느리고, 에탄올 (C_2H_5OH)은 프로판올 (C_3H_7OH)보다 반응속도가 느린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사이드 체인에 따라 산화반응의 반응 경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반응속도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실험을 십여 년 전에 했습니다. 연구에 기반이 되는 이론모델이 있었는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어 이론을 설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실험은 약간 academic한 부분이기 때문에 응용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촉매 시스템이나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연구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은 이러한 응용분야에 관심이 가더군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 영역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 안목이 생겨 여러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구의 방향을 새로이 잡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discussion이 중요하겠죠. 질문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논리적인 사고로 상대를 설득해야 할 때가 있어요. 과학적 대화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고쳐주는 과정에서 시너지가 생깁니다. 과학적인 주제의 discussion은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Q. 화학과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부탁드립니다.

A. COVID-19사태로 부득이하게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인터뷰나 소규모 만남을 통해 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학생들이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를 요청해줘서 정말 뿌듯하고 고맙습니다. 다른

교수님들과도 이러한 자리를 많이 만들었음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경험에서 얻어지는 지혜가 다르다 보니 다른 교수님들도 여러분께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1, 2학년이 가장 공부하기 좋은 때이니 지식을 쌓으며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고민하는 나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때도 한 얘기인데, 화학은 분야가 넓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지원했을 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넓게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화학과 관련하여 핫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미래에 하는 일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 시야를 넓게 가지고 남들이 뭘 하는지 둘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고!

Q. 화학과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은요?

- A. 여러분들이 화학과라는 점에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학과를 선택해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학과를 오게 된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텐데 화학이라는 분야는 다양한 진출분야가 있으니 뭐가 좋을지, 뭘 잘하는지를 고민을 해보도록 해요. 화학과를 잘 왔다고 생각하다 보면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대학 생활 4년을 더 보람차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냥 대학 서열만 따지는 것은 과거의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질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그러다 보면 결국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과가 학년 당 40명이라 조금만 노력하면 모두 서로를 알 수 있는 좋은 사이즈예요. 그러니 과 사람들끼리 유대감을 갖고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동반자로 같이 어려움도 해결해 나가고 서로 고민도 얘기하며 서로의 motivation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3

학교 주변
맛집



03 학교 주변 맛집 _ 1탄

#떡슐랭 _ 밀떡

프랜차이즈 이지만
전국에 10곳도 없는 지점 중 하나가 아주대에 !



- ▶ 오리지널 떡볶이와 로제 떡볶이 중 취향에 따라 선택해 꼭 먹어볼 것 ! 오리지널엔 중국당면, 로제엔 파스타면 추가하는 것 강력 추천 !

#포장마차

요즘 잘 보이지 않는 포장마차 떡볶이가 **아주대 정문 앞에** 있음 !!!



- ▶ 함께 파는 튀김, 순대, 어묵도 최고 !
주머니 속에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 = 포장마차 떡볶이를 먹기 위하여.
떡볶이 먹고 싶은데 가격이 부담스러울 때 추천 !

03 학교 주변 맛집 - 2탄

#권육회

토핑 가득 육회 맛집 !!!



- ▶ 술 안주로 제격이지만, 육회 비빔밥은 식사로도 최고! 스파이시 파스타도 면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토핑으로 든든하게 먹을 수 있었음. 육회와 같이 나오는 배가 채로 되어 있지 않고 깍둑썰기로 되어 있어 식감이 좋았음!

#멘야고코로

우리 학교 앞에 마제소바 전문점이?!!!



- ▶ 신호등 건너 왼쪽 골목길에 숨겨진 마제소바 맛집! 중독성 있는 맛의 마제소바! 면을 먹고 난 후, 남은 소스에 밥까지 비벼서 먹으면 세상 든든함이 느껴진다. 가끔 국물이 팽기는 날, 멘야고코로에는 라멘도 팔고 있다! 따뜻한 국물과 함께 라멘 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 감칠맛도는 식사를 하고 싶다면 멘야고코로를 추천한다.

03 학교 주변 맛집 _ 3탄

#어송스시

작은 가게 이지만
초밥이 너무나도 맛있는 맛집 !!!



- ▶ 웨이팅이 있을 때가 많지만 그만큼 맛은 보장 ! 숙성된 회라 더욱 맛있었고, 평범할 거라 생각했던 새우초밥과 계란초밥이 너무 맛있어서 반해버림 ! 세트 메뉴에 우동도 들어가 든든한 한끼 가능함. 후식으로 주는 방울토마토도 너무 맛있으니 강력 추천함 !

#팔호선

가까운 곳에 엄청엄청 맛있는 **수제 맥주 맛집이** ?!!!



- ▶ 친구들과 잔잔하게 수제 맥주를 즐기고 싶은 사람은 여기로 ! 안주도 피자, 스테이크, 토마토 등등 맥주와 잘 어울리는 조합들이 가득가득함. 피자는 하루에 파는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 일찍일찍 찾아가볼 것 ! 팔호선 아래에 막걸리 맛집인 일호선과 숯불포장마차인 사호선도 있으니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

04

학교 시설 알아보기



04 학교 시설 알아보기



우리가 주로 실험하는 곳!
8번에는 화학과 과사무실이 위치함

학생회관과 다산관에서
학식도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카페도
있다!

모두들 열심히 공부하는 장소인
도서관! 도서관과 학생회관 사이에
뜬뜬이 테라스가 있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좋다! 그리고
중간중간 조경이 잘 되어 있고,
'아주야이'들을 볼 수 있음

- | | | | |
|---|---|---|---------------------------------------|
| 1 경문 Main Gate | 13 토목실험동 Civil Engineering Laboratory | 27 중앙도서관 Central Library | 40 송재관 Songjae Hall |
| 2 버스정류장 School Bus Stop | 14 팔달관 Paldal Hall | 28 노천극장 Amphitheater | 41 아주대학교병원 Aju University Hospital |
| 3 선구자상 The Pioneer Statue | 15 학군단 R.O.T.C Headquarters | 29 율곡관 Yulgok Hall | 42 병원별관 University Hospital Annex |
| 4 에너지센터 Energy Center | 16 산학협력원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Building | 30 다산관 Dasan Hall | 43 웰빙센터 Well-Being Center |
| 5 원천관 Woncheon Hall | 17 국제학사(기숙사) International House(Dormitory 5) | 31 약학관 College of Pharmacy | 44 제1주차빌딩 Parking Garage 1 |
| 6 원천정보관 Woncheon Haedong Hall | 18 광고관(기숙사) Gwanggyo Hall(Dormitory 4) | 32 약학수거센터 및 실험동물센터
Clinical Skills Laboratory and Animal Research Center | 45 장례식당 Funeral Hall |
| 7 북문 North Gate | 19 화홍관(기숙사) Hwahong Hall(Dormitory 3) | 33 종합관 Jonghap Hall | 46 병원정문 University Hospital Main Gate |
| 8 화학실험동 Chemical Engineering Laboratory | 20 용지관(기숙사) Yongji Hall(Dormitory 2) | 34 테니스장 Tennis Courts | 47 동문 East Gate |
| 9 서관 West Hall | 21 기숙사 식당 Dormitory Dining Hall | 35 의생명과학관 School of Medicine-Research Building | 48 권역외상센터 Trauma Center |
| 10 동관 East Hall | 22 남계관(기숙사) Namje Hall(Dormitory 1) | 36 제2주차빌딩 Parking Garage 2 | 49 남문 South Gate |
| 11 종합설계동 Capstone Design Laboratory | 23 학생회관1 Student Union 1 | 37 체육관 Gymnasium | 50 홍재관 Hongjae Hall |
| 12 대형지반연구실험동
Geotechnical Engineering Laboratory | 24 학생회관2 Student Union 2 | 38 운동장 Athletic Field | 51 가온마당 Gaon Garden |
| | 25 성효관 Seongho Hall | 39 캠퍼스플라자 Campus Plaza | 52 혜강관 Hyeogang Hall (예정) |
| | 26 데테라스 The Terrace | | 53 일신관 Isin Hall (예정) |

05

추가 공지 사항



05 추가 공지 사항

동아리 홍보 (진로탐색 동아리 Covalent)

: 진로에 대해 같이 고민할 학부생을 모집합니다!

진로탐색 동아리 Covalent 는 진로탐색활동의 하나로, 화학과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소학회입니다. 주로, 선배님들이 취업한 회사 또는 연구소를 찾아가 선배님의 안내로 현장에서 하는 일을 보고 들으며 체험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Vlog, 발표, 감상문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KIST, BASF코리아, 고등기술연구원(용인), 바이오 진단회사 등에 취업한 졸업생 또는 재직연구원분들을 섭외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후 더 많은 아주대 화학과 졸업생들도 섭외할 예정입니다. 또, 학생들이 스스로 섭외해서 방문 탐방을 소개할 회사가 있다면 그 부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섭외한 모든 회사를 한 두 명씩 다 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학부생 한 둘 정도로 연결시켜 자발적으로 스케줄을 잡아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Covalent에서 진행하는 모든 활동은 소학회 활동 지원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위의 '현장탐방프로그램'에 대한 이름 공모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학우 여러분의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세요! 공모전 당첨자에게는 커다란 포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활동하고자 희망하는 분들은 아래 첨부된 이메일 주소로 메시지 남겨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Email 주소 : yukwonkim@ajou.ac.kr (김유권 교수님)

alswldls0131@ajou.ac.kr (21학번 과대 민지인)

wjddus0702@ajou.ac.kr (21학번 김정연)

05 추가 공지 사항

동아리 홍보 (Alchemy)

: 관심사를 공유할 학우분들을 모집합니다!

화학과 소학회 Alchemy는 화학과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활동은 금요일마다 티타임 형식으로 가벼운 모임 가질 예정이며, 매번 자원으로 발표를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화나 발표의 주제는 최신화학분야에서의 새로운 발견이나 발명, 기업 기술 소개, 실생활에서 찾은 연구 소재 등으로, 학부생을 중심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시작하면 카카오톡 화학과 플러스 채널로 매번 공지하려고 합니다. 관심있는 학우분들은 공지를 참고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면참가자에게는 커피&과자를 제공하며, 실시간 줌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비대면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추가로, 모든 Alchemy 활동은 줌으로 녹화되어 실시간으로 참여하지 못한 학우분들도 관람이 가능하게 녹화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위의 '금요 티타임'에 대한 이름 공모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학우 여러분의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세요! 공모전 당첨자에게는 커다란 포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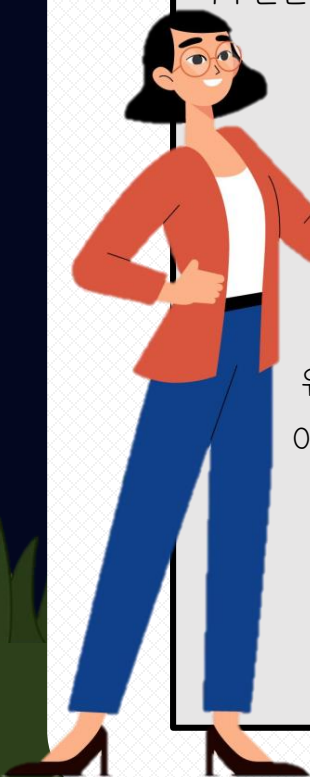
위와 관련하여 활동하고자 희망하는 분들은 아래 첨부된 이메일 주소로 메시지 남겨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Email 주소 : yukwonkim@ajou.ac.kr (김유권 교수님)

alswldls0131@ajou.ac.kr (21학번 과대 민지인)

wjddus0702@ajou.ac.kr (21학번 김정연)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 아주대 화학과 검색



05 추가 공지 사항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학생회장단 결성 안내

현재, 저희 화학과와 학생 회장, 부회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조직된 회장단이 없어 자연스레 과의 학생회가 결성되지 않았고, 저희는 6개월 간 '비상대책위원회'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와 다르게 활동에 여러 제약이 있어 활발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11월에 열리는 선거에 출마하실 **멋있는 학우분들**을 찾습니다. 학생회장, 부회장 등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후보 등록 조건>

- 총학생회 정·부후보는 선거권을 가진 4학기 이상 정규학기 이하 등록한 자로 유권자 4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각 단과대학, 학과, 반 학생회 정·부후보는 선거권을 가진 4학기 이상 정규학기 이하 등록한 자로 해당 단위 유권자 1/1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누계평점 2.0 이상인 자.
 - 교내 징계를 받지 않은 자.
 - 직선제대표자를 추천 및 등록 기간 이전에 사퇴한 자.
 - 중앙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촉을 받아 선거 관리에 관여하지 않는 자.
- 35대 자연과학대학 선거 공고문 참고

<선거 기간>

- 선거 일정은 11월 중에 예정되어 있음.
- 관련 공지는 10월 중 학생회 측에서 사전 공고할 예정임.

위와 관련 문의 사항이나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첨부된 메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mail 주소 : yukwonkim@ajou.ac.kr (김유권 교수님)

alswldls0131@ajou.ac.kr (21학번 과대 민지인)

I 에필로그

먼저, '케미스토리'를 끝까지 함께 해준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소식지로 밖에 이야기를 전달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저희는 비상 대책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처음 화학과에 대한 여러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접하며, 이 소식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고, 그렇게 소식지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화학과의 여러 소식들과 정보들을 가볍게 즐겨 볼 수 있게 제작하기 위해 소식지와 함께 캠퍼스의 하루를 만끽한다는 느낌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소식지 '케미스토리'를 통해 화학과의 매력을 맘껏 느낄 수 있길 희망합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하루 빨리 진정되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에 꽃 길이가득하길 소망하며 마무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자연대학부 화학과 비상대책위원회

편집자

21학번 김정연 21학번 노정우 21학번 민지인 21학번 박가은

소식지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18학번 전예린 20학번 김진희 20학번 서민호 20학번 서혜인
21학번 김수빈 21학번 김정연 21학번 노정우 21학번 민지인
21학번 박가은 21학번 서혜지

인터뷰에 참여하신 교수님

김유권 교수님 김환명 교수님 서성은 교수님

빛나는
우리의
청춘을
담아서

